

#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의 관계

-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self-differentiation and early adjustment of  
the infant daycare center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hild-rearing attitude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아동복지학과

석사 허영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주리\*\*\*

Dept. of Child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

Master : Hea, Young-Sun

Dept. of Child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 Lee, Ju-Lie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self-differentiation and the rearing review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for the early adjustment of 1 to 2 years old at a nursery. First, the results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ild-rearing attitudes of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show significance in the affectional-autonomic attitude in the top quarter of the total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Second, the level of the self-differentiation depends on the early adjustment results from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elements; except for the emotional fusion that results in the higher the level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that leads to higher early adjustment. Third, the impact of affectional-autonomic and affectional-controlling attitude reflected the positive influence of the entire early adjustment based on the effect of the child-rearing attitude. Finally, the results on whether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s influences the self-differentiation and the transition of the infant would mediate the early adjustment-relationship as shown in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Each type of mediation effect showed an affectional-autonomic and affectional-controlling attitude. In this study, the mother's self-differentiation and the infant nursery process shows the early adjustment associated with variables, the mother's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and the parenting attitude that effects the early adjustment that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 of self-differentiation and the early adjustment of child-rearing attitudes.

---

▲주요어(Key Words) :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 양육태도(Child-rearing attitude), 초기적응(Early adjustment)

---

\* 본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주 저 자 : 허영순 (E-mail : aka69@hanmail.net)

\*\*\* 교신저자 : 이주리 (E-mail : julie@cau.ac.kr)

## I. 서론

전통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가사와 더불어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영, 유아를 위한 교육 기관이 없었던 시기에는 아이들의 교육은 가정 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고, 양육에 대한 많은 부분을 어머니들이 책임져 왔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였고, 전통사회 구조가 붕괴되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전통 사회 구조의 기본이었던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산업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정 내에서의 여성들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이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다양한 영, 유아 교육 기관을 통해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연령이 낮은 영아기 부터 어린이집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육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 2세의 전체영아 수는 889,050명에서 2008년에는 884,37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수는 2007년에는 344,921명에서 2008년에는 402,644명으로 증가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에 전체 영아 중 45.5%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는 것은 양육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예이며, 이른 시기부터 영아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어머니 이외의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낯선 상황과 새로운 일과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한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자신의 전 발달을 구성해 나가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태진, 1998). 이렇게 영아기의 어린이집이라는 사회적 적응은 영아의 능력을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 자기확신, 사회성과 관련이 있는 것(Hendrick, 1975; Slee, 1986)으로 나타나므로 초기 어린이집 적응이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매우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영아들은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온 초기에는 환경도 낯설고 익숙했던 자신의 생활 패턴도 달라지며, 이제까지 부모에 의존해 왔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낯선 교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며, 또래와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관철해야하고, 일정시간 부모와 헤어져 있으면서 격리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유희정, 2005; Crosser, 1995). 또한 영아기는 의존성과 독립성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고, 각 발달 영역 간 에도 불균형을 나타내는 발달적 특성과 더불어 어린이집에서의 초기적응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어린이집에서의 신입영아의 초기적응이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아기는

인간 발달의 전 시기 중 가장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일생에 걸쳐 전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시기(김희진, 2004)이며, 생후 3세 이전에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의 수치를 증가시켜 전두엽과 같은 뇌 발달을 저해하게 된다(김유미, 2007)고 한다. 이는 영아가 낯선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적절한 지원과 민감한 반응으로 영아를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영아 자신의 개인 변인, 부모를 비롯한 가정변인, 교육기관의 환경적변인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사회화의 매개체가 되는 가정환경은 중요하며, 특히 인적 환경인 부모가 영아에게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영아의 성격, 태도, 가치관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신정숙, 2000). 또한 영아가 어머니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인 애착은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Waters & Deane, 1985)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으며, Bowlby는 부모 양육태도에 의해 자녀는 부모 이외의 타인과 외부세계에 대처하기 위한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인 애착 세계를 발달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특정한 애착 패턴을 형성시키게 되고(배성희, 1996),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애착 안정성과 관계가 있다(윤정희, 2002). 이는 영아의 전반적 발달뿐만 아니라 애착형성이나 적응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양육태도와 같은 어머니의 양육관련변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Abidin, 1990)에서 지적되어 왔으며,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부모 중 어머니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권일선 1996; 김영숙, 1998; 송영민, 1997; Pett & Vaughan-Cole, 1994). 특히 최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어떠한 유형의 양육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적응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김현미, 2004; 김혜선, 2009).

이는 국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된다(Biringen, Damon, Grigg, Mone, Pipp-Siegel, Skillern, & Stration, 2005;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예를 들어, Biringen et al.(2005)의 연구에서 어머니가 인내심이 없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수록 유아들은 유치원에서 공격성 등의 부적응 행동을 보였다. 반면, 지지적이고 자율성을 존중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과 교사의 관계, 사회적 기술(친구 돕기, 협력하기 등) 및 또래 지위 등 아동의 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변인들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또한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증진된다고 보고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에서의 적응에 관여하는 유의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렇게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영아가 가정 밖에서 적응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 부모의 원가족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아동발달연구에서 생태학적 관점과 전생애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Luster & Okagaki, 1993; 전현진, 박성현, 1999에서 재인용).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발달사, 인성과 같은 부모특성과 결혼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및 직업경험 등의 부모-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Belsky, 1984). 그래서 어머니의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적 특성 및 인지적 특성과 양육태도를 다룬 연구에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성격특성으로 외향성과 신경증(김수진·도현심, 2001) 그리고 우호성과 자율성, 우울(Belsky, 1984) 등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문희선(1995)은 부모의 가족체계를 나타내는 자기분화를 측정하여 양육태도와의 관계 연구를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기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 포함된 핵심개념으로, 개인이 타인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기분화는 정신내적 개념인 동시에 대인관계적 개념으로 정신내적으로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인관계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분화를 의미한다(정문자·정혜정·이선혜·전영주, 2009). Bowen(1982)은 개인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원가족으로부터 획득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자기분화를 제시하였다. 자기분화는 어떤 수준의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원가족의 정서적 혼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며 개인의 기능수준이나 인간적인 성숙도와 직결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 개인이 자기분화를 이루는 것은 그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자기분화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 양육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기분화수준이 낮은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시키거나 유아의 자기통제력을 포함한 정서지능 발달 및 제반 발달과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혜순, 2008; 문희선, 1995; 이미숙, 2005; 조영경, 1999; 최난경, 2003; Schwartz, Thigpen, & Montgomery, 2006; Stanberry & Stanberry, 1993). Buehler와 Gerard(2002)는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은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과 현재 부부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제가 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양육태도를 설명하는데 유력한 변수가 됨을 입증하였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영유아기 때 부모의 정서적 분위기에 많은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Skowron, Kozlowski & Pincus(2010)은 과도한 정서적 반응(예. emotional flooding) 혹은 정서적 단절 등(예.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에 대한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인 단절은 자녀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대하는 양육태도와 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 과도한 정서적 반응과 융합은 자녀를 비난하는 양육태도와 관련이 되었다(Schwartz, Thigpen, & Montgomery, 2006). 이것은 영아의 발달에서 가장 큰 모방의 대상이 되고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인식한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호자의 특성(홍윤정, 2004)과 영아의 등원 시 어머니의 머뭇거리는 행동과 같은 어머니의 불안한 심리가 적응을 어렵게 한다(이현경, 2002)고 보고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처럼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은 영아의 초기적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중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영아의 적응 수준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경로를 가설로 세워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되는 영아들이 초기적응을 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분화수준과 영아의 적응 수준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에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 1,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분화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그것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관계를 탐색해 보고,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관련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영아가 어린이집에 효과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만 1, 2세 영아 중 2010년 3월에 어린이집에 입소하여 초기적응을 하고 있는 신입영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질문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총 22개의 어린이집의 해당영아의 어머니 그리고 해당 영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어머니용과 교사용 질문지를 1쌍으로 312부를 배부하였고, 이 중 250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80%였다.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어머니용과 영아용의 쌍이 이루어지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한 총 229부의 자료를 실제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영아 총 229명 중 남자가 91명(39.7%), 여자가 138명(60.3%)이었으며, 영아의 연령은 만 1세가 108명(47.1%), 만 2세가 121명(52.9%)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은 25~30세가 37(16.0%), 31~35세가 126명(54.9%), 36~40세가 47명(20.9%), 41~45세가 15명(6.5%), 46세 이상은 4명(1.7%)이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학력에 따라 고등학교가 28명(12.2%), 전문대가 41명(17.9%), 대학교 132명(57.6%), 대학원이상 28명(12.2%)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어머니는 111명(48.5%), 직업이 없는 어머니는 118명(51.5%)이었다.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일주일 동안 평균 일하는 시간은 20시간미만이 13명(11.7%), 20~40시간 이상은 70명(63.0%), 40시간 이상은 28명(25.3%)으로 일주일 평균 20시간~40시간 일하는 어머니들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은 500만원이상은 80명(34.9%), 200~300만원미만은 48명(21.0%), 300~400만원미만은 47명(20.5%), 400~500만원미만은 35명(15.3%), 100~200만원미만은 14명(6.1%), 100만원미만은 5명(2.2%)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어머니의 자기분화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Bowen의 이론에 근거로 하여 개발한 한국형 자기분화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자기분화척도는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기존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가족분화요인을 제외하고, 언어표현에 있어서도 문장의 완성도와 명료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근에 개발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심리내적 차원, '정서적 단절' 및 '타인과의 융합'요인으로 구성된 대인관계적 차원, '정서적 융합'으로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차원을 포괄하는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융합'은 개인의 자존감이나 정서체계가 타인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는 정도를 의미하며, 정혜정과 조은경의 연구에서 특이하게 발견된 요인으로 이는 관계성과 연결성을 중시하는 가족 중심적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된 한국인 교유의 자기분화 하위척도이다.

본 도구는 정서적 반응(9문항), 자기입장(8문항), 타인과의 융합(7문항), 정서적 단절(5문항), 정서적 융합(9문항)의 5개의 하위요소로 총 38문항으로 되어 있고, 각 문항은 0-5점까지 Likert 식 6점 척도로 자기분화의 총 점수가 높을수록 총 자기분화 수준은 높으며, 각 하위요소별 높은 점수의 의미는 정서적 반응,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은 낮은 반면 자기입장은 높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61-.72로 나타났다(정서적 반응 .67, 자기 입장 .61, 타인과의 융합 .69, 정서적 단절 .65, 정서적 융합 .72).

####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sefer의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MBRI)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고, 배문주(2004)가 사용한 양육태도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거부적·자율적·통제적 태도로 제한하고 각각 12문항씩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들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예. 어머니께서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워 하시는 편입니까? 어머니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녀 혼자 무얼 하겠다고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걸로로 잘 하십니까?) 연령에 상관없이 측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각 문항은 1-5점까지 Likert 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먼저, 각 하위요소별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양육태도

를 구하였고, 다음으로 애정적 태도 점수와 거부적 태도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태도에 따라 애정적 또는 거부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자율적 태도 점수와 통제적 태도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태도에 따라 자율적 태도 또는 통제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절차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자율적 태도,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태도, 거부적-통제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애정적-자율적 태도의 점수는 애정적 태도 점수와 자율적 태도의 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내어 산출하였고, 애정적-통제적 태도, 거부적-자율적 태도, 거부적-통제적 태도도 같은 방법으로 양육태도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70-.87로 나타났다(애정적 태도 .87, 거부적 태도 .83, 자율적 태도 .70, 통제적 태도 .82).

### 3)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Jewsuwan, Luster, Kostelink(1993)가 개발한 PAQ(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오종은(2001)이 번안하여 만 1, 2세 영아에 맞게 수정하고, 전미경(2004)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래의 30문항에서 문항 수는 수정하지 않았으나 만 1, 2세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영아반 교사 경력 5년 이상인 2인의 교사의견을 참고하여 6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2문항은 내용을 수정하였고, 4문항은 기존의 내용에 예를 첨가하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수정된 문항은 '장난감을 나누어 쓴다.'를 '교사나 친구에게 장난감을 준다.'로, '친구와 놀잇감을 함께 가지고 놀거나 교대로 갖고 논다.'를 '친구와 놀잇감을 같이 가지고 놀거나 나누어 줄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친구나 선생님이 기분 나빠할 때 관심을 표현한다.'에는 '예 : 친구나 교사의 얼굴표정이나 말소리에 따라 적절히 반응한다.'를 첨가하고,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에는 '예 : 박수치기, 춤, 노래 등 활동에 참여한다.'를 첨가하고, '보호자와 비교적 잘 헤어진다.'에는 '예 : 헤어질 때는 울지만 곧 진정한다.'를 첨가하고, '하루일과를 이해함으로 알 수 있다.'에는 '예 : 매일 일정한 순서로 일어나는 일과들, 식사, 간식, 낮잠 등을 알고 있다.'를 첨가하고, '새로운 상황이나 변화에 불안해한다.'에는 '예 : 장소이동, 낯선 성인의 등장 등'을 첨가하여 기존 내용에 예를 첨가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기적응 질문지는 교사가 평정하는 것으로 친사회적 행동(4문항), 긍정적 감정(7문항), 또래관계(6문항), 자아강도(4문항), 일과에 대한 적응(9문항)의 총 5개 하위요소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60-.77로 나타났다(친사회적 행동 .73, 긍정적 감정 .60, 또래관계 .67, 자아강도 .77, 일과에 대한 적응 .67).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회과학통계패키지(SPSS) 13.0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어머니의 자기분화, 양육태도,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의 전반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여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 2.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각 하위요소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양육태도가 초기적응의 하위요소 중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12.3%로 나타났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정(+)적 영향력( $\beta=.242, p<.01$ )이 나타났으며,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부(-)적 영향력( $\beta=-.258, p<.01$ )이 나타났다. 그러나 애정적-통제적,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모형식의 검증에서는 F값이 10.312로  $p<.01$  수준에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13.2%로 나타났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정(+)적 영향력( $\beta=.257, p<.01$ )이 나타났으며,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부(-)적 영향력( $\beta=-.251, p<.01$ )이 나타났다. 그러나 애정적-통제적,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모형식의 검증에서는 F값이 11.224로  $p<.01$  수준에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lt;표 1&gt; 어머니의 자기분화 및 양육태도,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분	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어머니의 자기분화	총 자기분화	108.73	33.91
	정서적 반응	28.24	8.42
	자기입장	23.24	9.15
	타인과의 융합	16.12	7.75
	정서단절	13.99	6.19
	정서적 융합	27.14	7.07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전체초기적응	2.01	.754
	친사회적 행동	1.97	.322
	긍정적 감정	2.23	.564
	또래관계	1.84	.449
	자아강도	1.90	.807
	일과에 대한 적응	2.32	.777
어머니의 양육태도	애정적 태도	2.64	.653
	자율적 태도	2.62	.671
	거부적 태도	2.33	.891
	통제적 태도	2.29	.994

&lt;표 2&gt;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beta$	t	R <sup>2</sup>	F
친사회적 행동	애정적-자율적	.252	.242	3.791 **	.123	10.312**
	애정적-통제적	-.034	-.025	-.364		
	거부적-자율적	-.007	-.009	-.109		
	거부적-통제적	-.226	-.258	-3.728 **		
긍정적 감정	애정적-자율적	.256	.257	4.041 **	.132	11.224**
	애정적-통제적	-.006	.005	-.072		
	거부적-자율적	-.011	-.019	-.117		
	거부적-통제적	-.211	-.251	-3.656 **		
또래관계	애정적-자율적	.124	.142	2.140 *	.053	4.085**
	애정적-통제적	.093	.083	1.146		
	거부적-자율적	-.099	-.102	-1.243		
	거부적-통제적	-.083	-.113	-1.576		
자아강도	애정적-자율적	.196	.205	2.801 **	.143	3.331**
	애정적-통제적	-.007	-.012	-.160		
	거부적-자율적	.112	.121	1.434		
	거부적-통제적	-.040	-.053	-.792		
일과에 대한 적응	애정적-자율적	.263	.271	3.900 **	.115	9.552**
	애정적-통제적	.213	.184	2.871 **		
	거부적-자율적	.074	.077	1.011		
	거부적-통제적	-.020	-.013	-.191		
전체 적응	애정적-자율적	.217	.210	2.339 *	.208	10.569**
	애정적-통제적	.249	.253	2.562 *		
	거부적-자율적	.100	.102	1.172		
	거부적-통제적	-.124	-.136	-1.384		

\* $p < .05$ , \*\* $p < .01$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5.3%로 나타났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만 정(+)적 영향력( $\beta = .142, p < .05$ )이 나타났으며, 애정적-통제적, 거부적-자율적,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모형식의 검증에서는 F값이 4.085로  $p < .01$  수준에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자아강도에 미치는 영향력

은 14.3%로 나타났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만 정(+)적 영향력( $\beta = .205, p < .01$ )이 나타났으며, 애정적-통제적, 거부적-자율적,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모형식의 검증에서는 F값이 3.331로  $p < .01$  수준에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일과에 대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11.5%로 나타났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 $\beta$

=.271,  $p<.01$ )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beta=.184, p<.01$ )는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거부적-자율적,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모형식의 검증에서는 F값이 9.552로  $p<.01$  수준에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전체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20.8%로 나타났고, 양육태도 유형에서는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 $\beta=.210, p<.05$ )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beta=.253, p<.05$ )는 정(+)적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거부적-자율적,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회귀모형식의 검증에서는 F값이 10.569로  $p<.01$  수준에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 3.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대한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의 관계에서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와 같이 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분화는 매개변수인 양육태도( $\beta=.311, p<.01$ )와 종속변수인 초기적응( $\beta=.274, p<.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통제된 매개변수인 양육태도가 초기적응에 유의한 영향( $\beta=.201, p<.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알 수 있는 단순회귀분석에서 2단계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274$ )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의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222$ )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 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더 적게 나타나 양육태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의 관계에

서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의 관계에서 양육태도의 유형별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표 4>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표 5>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표 6>의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 <표 7>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와 같이 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분화는 매개변수인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 $\beta=.304, p<.01$ )와 종속변수인 초기적응( $\beta=.274, p<.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통제된 매개변수인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가 초기적응에 유의한 영향( $\beta=.249, p<.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알 수 있는 단순회귀분석에서 2단계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274$ )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의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195$ )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 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더 적게 나타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분화는 매개변수인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beta=.211, p<.01$ )와 종속변수인 초기적응( $\beta=.274, p<.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통제된 매개변수인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가 초기적응에 유의한 영향( $\beta=.118, p<.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매개효과를 알 수 있는 단순회귀분석에서 2단계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274$ )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의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195$ )의 크기

<표 3>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초기적응 사이에서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분석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beta$	t	p	R <sup>2</sup>
자기분화/양육태도/ 초기적응	1단계(독립->매개)	.311**	3.579	.000	.271
	2단계(독립->종속)	.274**	3.274	.000	.266
	3단계(독립->매개)	.222*	2.644	.011	.247
	(매개->종속)	.201*	2.409		

\* $p<.05$ , \*\* $p<.01$

<표 4>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초기적응 사이에서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분석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증단계	$\beta$	t	p	R <sup>2</sup>
자기분화/ 애정적-자율적양육태도/ 초기적응	1단계(독립->매개)	.304**	4.044	.000	.284
	2단계(독립->종속)	.274**	3.274	.000	.266
	3단계(독립->매개)	.195*	2.654	.011	.227
	(매개->종속)	.249*	2.407	.019	

\* $p<.05$ , \*\* $p<.01$

<표 5>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초기적응 사이에서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분석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beta$	t	p	R <sup>2</sup>
자기분화/ 애정적-통제적양육태도/ 초기적응	1단계(독립->매개)	.211**	3.044	.000	.284
	2단계(독립->종속)	.274**	3.274	.000	.266
	3단계(독립->매개)	.195*	2.343	.034	.107
	(매개->종속)	.118*	2.194	.042	

\* $p < .05$ , \*\* $p < .01$

<표 6>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초기적응 사이에서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분석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beta$	t	p	R <sup>2</sup>
자기분화/ 거부적-자율적양육태도/ 초기적응	1단계(독립->매개)	-.111*	1.999	.049	.121
	2단계(독립->종속)	.274**	3.274	.000	.266
	3단계(독립->매개)	.302**	3.349	.000	.133
	(매개->종속)	-.093	1.342	.089	

\* $p < .05$ , \*\* $p < .01$

<표 7>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초기적응 사이에서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분석

독립/매개/종속변수	매개효과 검정단계	$\beta$	t	p	R <sup>2</sup>
자기분화/ 거부적-통제적양육태도/ 초기적응	1단계(독립->매개)	-.124*	1.999	.048	.105
	2단계(독립->종속)	.274**	3.274	.000	.266
	3단계(독립->매개)	.299*	2.342	.034	.144
	(매개->종속)	-.028	.743	.349	

\* $p < .05$ , \*\* $p < .01$

를 비교한 결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 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더 적게 나타나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수준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와 같이 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분화는 매개변수인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 $\beta = -.111$ ,  $p < .05$ )와 종속변수인 초기적응( $\beta = .274$ ,  $p < .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통제된 매개변수인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가 초기적응에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알 수 있는 단순회귀분석에서 2단계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 = .274$ )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의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 = .302$ )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 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과 같이 1,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분화는 매개변수인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 $\beta = -.124$ ,  $p < .05$ )와 종속변수인 초기적응( $\beta = .274$ ,  $p < .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통제된 매개변수인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가 초기적응에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알 수 있는 단순회귀분석에서 2단계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 = .274$ )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되었을 때의 독립변수의 영향력( $\beta = .299$ )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3단계 매개변수가 통제 되었을 때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나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의 관련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양육태도를 설정하여,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만 1, 2세 어린이집 신입원아의 어머니와 해당 영아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영아의 전체초기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영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관련김혜선,



2009)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통제적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이병은, 2003; 이정란, 1998) 연구결과와도 일치 한다. 또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태도는 단순한 억압, 지시, 지배, 처벌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기본생활의 습관화 교육을 받는 것으로, 통제 없이 자란 자녀는 내면화되어 있는 규칙과 규율이 없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김기홍, 2009)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Baumrind 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규칙이나 통제도 없이 무조건적인 애정과 허용을 제공하는 양육방식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어우러진 '권위적인 양육태도' 를 가장 바람직한 부모의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하위 요인 중 '일과에 대한 적응' 에 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하루 일정표에 따라 전반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적응에 부모의 애정이 뒷받침된 통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단 보육 생활에서 규칙과 규율을 따르는 것은 적응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한편,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5가지 하위 요인(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 또래 관계, 자아강도, 일과에 대한 적응) 모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녀에 대하여 애정을 보이고 지지적이며 자율성을 존중하는 어머니일수록 그 아동은 교사와의 관계, 친구 돕기나 협력하기 등 사회적 기술, 또래 지위 등이 모두 증진되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이처럼,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다른 양육태도들에 비해 영아 적응 수준의 전반에 걸쳐 고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점은 자율적 개념과 통제적 개념이 정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나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 모두 영아들이 어린이집의 초기 적응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은, 애정적 양육태도이다. 애정을 바탕으로 한 통제일 경우엔, 애정적-자율적 태도와 같이 초기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가 친사회적행동과 긍정적 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영아의 시기에는 자율적 양육태도가 좋다. 하지만 가정 내의 기본적인 규칙과 기본생활 습관, 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통제적 양육태도가 영아에 대한 애정을 기초로 한다면, 그것이 영아기 자녀의 자율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영아가 어린이집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기분화와 양육태도는 각각 초기적응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자기분화를 통제된 양육태도도 초기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양육태도를 통제된 자기분화가 초기적응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며 그 값이 양육태도가 통제되기 전의 값보다 작게 나타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양육태도를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Schwartz, Thigpen, & Montgomery, 2006; Skowron, Kozlowski & Pincus, 2010),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적응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권일선, 1996; 김영숙, 1998; 김현미, 2004; 김혜선, 2009; 송영민, 1997; Abidin, 1990; Biringen, Damon, Grigg, Mone, Pipp-Siegel, Skillern, & Stration, 2005; Pett & Vaughan-Cole, 1994; Stams, Juffer, & van Ijzendoorn, 2002; Stright, Gallagher, & Kelley, 2008)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이는 특히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이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구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 간 관계를 매개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을 다룰 때에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도전 혹은 문제들이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는 자칫 어머니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성격적인 특성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이처럼 어머니의 원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복합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며, 동시에 이와 같이 자녀양육은 그 영향이 3세대, 혹은 그 이상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자녀들에게 정서적으로 양질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유형별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어린이집 초기적응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부적-자율적 양육태도와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부 차원의 어머니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든 통제적이든 어떤 것도 유의한 영향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애정 차원의 어머니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이든 통제적이든 모두 유의한 영향을 가졌다. 즉,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애정-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통제적 양육태도를 매개

로 초기적응에 영향을 주어,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의 관계에서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밝히는 바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이처럼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과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 간 관계 사이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거부적인 태도보다 애정적인 태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자기분화, 양육태도와 같은 어머니의 특성 변인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며,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양육태도가 각각 독립적으로 초기적응에 영향을 주며, 자기분화는 양육태도를 매개로 초기적응에 영향을 준다. 즉, 어머니의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영아의 초기적응이 높아진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는 영아의 초기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어머니의 자기분화는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적-통제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돕기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서 영아 당사자를 위한 적응프로그램과 함께 어머니의 자기분화수준 향상과, 양육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상담과 같은 접근이 같이 병행 된다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기존 국내연구의 자기분화 및 양육태도와 초기적응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자기분화와 양육태도, 양육태도와 적응에 대해서 주로 두 변인간의 관계 규명이 주를 이루는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영아의 초기적응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규명하였다는 사실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영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자기분화, 양육태도의 관계를 밝혀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돕는 다각적 접근을 위한 기초자료제공의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얻어진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거부적-통제적인 양육태도는 9명(4.1%), 거부적-통제적 태도는 14명(6.3%)로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표본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측정도구를 본 연구자가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문항에 내용을 보완하여 교사들의 객관적 측정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교사가 측정하는 질문지를 통한 측정 방법은 실제 행동이나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의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양육태도와 초기적응과의 관계만을 다루었으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기분화와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서 자기분화와 함께 양육태도와 적응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다루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영아의 초기적응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다루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일선(1994).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홍(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및 조화 적합성이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도현심(2001). 부-모간 양육행동의 관련 변인: 부부관계의 질, 어머니의 인성 특성 및 아동의 초기 기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101-114.
-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미(2007). 영아의 초기적응을 위한 교사와 보육활동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2009).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양육태도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순(2008). 어머니의 자기분화와 양육 효능감이 유아의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205~230
- 김희진(2004). 가정환경변인과 유아의 감성지능 및 도덕적 판단능력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희선(1995).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과 자녀양육태도의 관계: 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문주(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희(1996).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09). 보육통계.
- 송영민(1997). 어머니양육태도와 유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숙(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어린이집 생활 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종은(2001).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의 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2005). 효율적인 혼합연령학급 운영을 위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정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9(2), 189-211.
- 윤정희(2002).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애착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2005). 어머니의 자기분화 수준에 따른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은(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란(1998).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2002).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관한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0(2), 255-272.
- 전미경(2004).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70.
- 정문자·정혜정·이선혜·전영주(2009). 가족치료의 이해. 제3판. 서울: 학지사
- 정혜정·조은경(2007).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 개발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9-46.
- 조영경(1999). 어머니와 자녀의 자기분화 수준 및 신경증적 경향성의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난경(2003).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윤정(2004). 영아의 보육시설 초기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태진(1998).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보육시설에서의 적응.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Pediatric psyc.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Jason Aronson, Inc.
- Bowen, M.(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owlby, J.(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 Biringen, Z., Damon, J., Grigg, W., Mone, J., Pipp-Siegel, S., Skillern, S., & Stration, J. (2005). Emotional availability: Differential predictions to infant attachment and kindergarten adjustment based on observation time and contex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4), 295-308.
- Buehler, C., & Gerard, J. M.(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en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65-77.
- Crosser, S.(1995). I want my mammy now! *Early Childhood News*, 7(3), 14-18.
- Hendrick, J.(1975). *The Whole Child: New Trend in Early Education*. Saint Louis : The C. V. Moby Co.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3- 51.
- Pett, M. a., & Vaughan-Cole, B.(1994), Maternal employment and mother-child interaction in young divorced married families, *Family Relations*, 43, 151-158.
- Schwartz, J. P., Thigpen, S. E., & Montgomery, J. K.(2006). Examination of parenting styles of processing emotions and differentiation of self.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 Families*, 14(1), 41-48.
- Skowron, E. A., Kozlowski, J. M., & Pincus, A. L. (2010). Differentiation, self - other representations, and

- rupture - repair processes: Predicting child maltreatment ris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3), 304-316.
- Slee, D. T.(1986). The relation of temperament and other factors to children's kindergarter adjustment,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17, 104-112.
- Stams, G.-J., J. M., Juffer, F., & van IJzendoorn, M. H. (2002). Maternal sensitivity, infant attachment, and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predict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The case of adopted children and their biologically unrelated par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806-821.
- Stanberry, J. P., & Stanberry, A. M.(1993). Postering parental autonomy: An aid to effective parenting.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Early Childhood Association.
- Stright, A. D., Gallagher, K. C., & Kelley, K. (2008). Infant temperament moderates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in early childhood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irst grade. *Child Development*, 79(1), 186-200.
- Waters, E., & Deane, K., E.(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41-65.

- 접수일 : 2010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10년 08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27일